

12 장을 기점으로 예수의 공생애(public ministry)가 끝난다. 이 후로부터는 소수의 제자들과의 담화 내용을 전한다. 요한복음의 메세지는, 한 마디로, 예수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1:12)는 고발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며(1:14), 예수야말로 하느님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1:18). 요한복음 12 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이 세상에 드러난다(12:31, 46-48)고 적고 있다.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눈/인식이 다르다.

A. 예루살렘 입성

1. 세상의 왕과의 차이

- Anointing=> 죽음을 예비
 - 공관복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인이 머리에(마 26:6-13; 막 14:3-9). 눅 7:36-50=> 갈릴리 바리새인의 집에서,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씻음.
 - 순서. 공관복음에서는 입성이후, 요한복음에서는 입성 이전.
- 나귀(예수) vs. 말(세상의 군왕)

2. 예수의 삶: 실패인가?

- 세번째 입성 (2:13; 7:10; 12:12)
- 호산나 (<= 시 118:25-26, **אֲנִי הוֹשִׁיעָה**)
 - 왕의 job description. cf. 삼하 14:4 (여인의 첫 마디, "도우소서!")
 - 예수에게서 전통적인 왕/지도자의 모습을 기대. 거꾸로 읽기=>현 지도자의 무능력 비판/고발 (12:12-13,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맞으러 나옴)

B. 제자도—크리스천의 삶

1. 자기 죽이기(?)

-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25 절)
 - 나를 돌아봄=>자성. 종교의 출발, 핵심
 - AWP: "and the one who is hating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into the life of the age to come." Or
And the one who is hating his life in this world—for/into the life of the age to come—will keep it.
- 겐세마네에서 하늘로부터 음성. 공관복음서의 변화산 체험, 다시 읽기 (공통점. 제자들을 위함(28-30 절). 역설적으로, 제자 자신들의 이야기)

2. 세상의 심판

- 예수의 죽음(lit., "being lifted up")은 곧 세상의 심판.
- 영원히 있는 그리스도=> 다윗 왕 (사무엘 상 7장, 영원한 언약=> 시 89:29-37; 110:4)
-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이사야 제대로 읽기 (see the attachment)
 - 심판의 원인과 결과,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
 - 결국은 자기 이야기. 성서 읽기/해석의 열쇠

생각해 보기

1.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2. 예수를 믿는다 함은, 예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12:44-45). 이 말을 나는 어떻게 읽나/이해하나?